

# 수소·로컬푸드 안정 정착 지속가능 부안 실현 집중



민선 8기 부안군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합찬 걸음을 내디디며 지속 가능한 부안 실현에 집중했다. 수소산업, 부안형 푸드플랜, 글로벌 휴양관광 등 세비쿼 경제 정책을 필두로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꾀했으며 RE100 신단,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K-POP 국제학교 유치 등을 추진하면서 새만금을 지역 발전 기회로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완공과 부안형 로컬푸드 안정 정착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 시로 표현한 노을대교의 모습

### ▲세비쿼 경제 중점 추진, 지속 가능 지역경제 기틀 마련

부안군은 부안형 수소산업 육성, 부안형 푸드플랜 구축, 글로벌 휴양 관광도시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 농업, 관광이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세비쿼 경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다.

국내 첫 상업용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완공돼 전국 최초로 하루 1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제2기 수소도시도 선정됐다.

또 2021년 개장한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은 개장 4년 만에 600여 농가와 7,000여 소비자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누적 매출액 250억원과 누적 방문객 54만명을 달성했다.

우체국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전자상거래 누적 매출액 또한 100억원에 달한다

### ▲지역 숙원 사업 속속 해결, 살기 좋은 부안 최선

부안군은 수십년 묵은 지역 현안을 속속 해결하며 살기 좋은 부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했다

오랜 기간 민원과 지역 이미지 훼손의 대표적 골칫거리였던 격포 불법 건축물 및 아홉구미 불법 포장마차존을 50년 만에 정비했으며 노후화와 장비철 상습 침수, 지역 상권 쇠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외버스터미널도 50년 만에 신축했다.

지난 30여년간 부안과 고창의 숙원사업인 부

### 첨단산업 · 농업 · 관광 맞물린 세비쿼 경제로 지역경제 기틀 마련 수십년 묵은 지역 현안 속속 해결 1000만 관광객 시대 도전 현실화 군민들의 일상 바꾼 정책도 다채

창대교 사업도 민선 7기 들어 단순한 교량이 아닌 관광형 노을대교로 제안해 건립이 확정됐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전국 21개 민(灣) 가운데 유일하게 수산통식물 포획·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던 곰소만 조업금지구역도 60년 만에 해제했다.

또 그동안 통행량 부족에 따른 경제성 미흡으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돼 왔던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휴게소도 17년 만에 부안교터청자 휴게소로 정식 건립됐으며 50여 부안군민의 열원이던 원전 보통교부세도 올해부터 매년 약 25억원 가량 확보했다.

### ▲대규모 관광 개발 착착, 1000만 관광객 시대 현실

부안군은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 1000만 관광객 시대를 향한 도전도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골프장이 전무했던 지역 여건 극복을 위해 민자 유치로 격포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완공 시 국내·외 관광객 증가와 체류형 관광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탁월한 해안경관을 품은 변산마실길 역시 부안군 대표 관광자원으로 부상했다. 특히 지난해 사스테이지가 만개하며 전국적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붉노랑상사화 등 계절별 꽃 식재로 사계절 아름다운 길로 조성되고 있다. 1933년 개장에 서해안 3대 해수욕장이었던 변산해수욕장 역시 국립공원 지정 이후 침체를 겪었지만 관광지 조성사업과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을 통해 대대적으로 정비해 해수욕장 이용객 순위가 2018년 142위에서 2024년 39위



- 1 원전제도 개선 촉구
- 2 변산 마실길
- 3 부안마실축제
- 4 시외버스터미널 신축

는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도 적극 나섰다.

푸드앤레포츠타운 개관 등 부안형 푸드플랜 안정 정착을 통해 살맛 나는 농어업을 실현했으며 생활밀착형 공영주차장 8개소 조성,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소방도로 개설(12개 노선), 교통사고 위험지역 회전교차로 설치(12개소)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개선에 집중했다.

또 가족친화적 복합공간인 온가족센터 개관과 도심권 내 청소년 전용공간인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인프라 구축, 관내 중·고등학교 석식 지원, 전국 최초 대학교 전 학년 전 학기 반값등록금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했다.

이와 함께 2018년 1,258명 규모던 어르신 일자리 사업도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통해 올해 5,317명으로 확대해 안정된 노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으며 군민안전보험, 여성범죄 사각지대 제로화, 읍면 자동기상관측장비 및 자동성상정보시스템 구축 등 군민 모두가 편안한 안전·안심 부안 구현에 역량을 모았다.

부안군은 군민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할 수 있



고창군

겨울마저 한 장면이 되는 곳,

# 고창

고창음성 · 고창정보리밭